

## 집단지성의 관점으로 본 고대근동의 종교적 지식과 종교전문가들\*

윤동녕(서울장신대)

---

### 1. 서론

본 연구는 집단지성이라는 관점에서 고대근동의 종교적 지식과 종교전문가들의 역할 및 기능을 연구한다.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가 경쟁과 협업을 통해 얻는 집단적 능력을 말한다.<sup>1</sup> 피에르 레비(Pierre Lévy)는 오늘날 전문가들의 지식이 파편화 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 그가 이처럼 비판한 것은 전문가들이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또 그들의 전문 분야가 다원화되어서 지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개별지성의 형태로는 지식 창조가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지식이 파편화되고 지식창조가 어려웠던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5846)

1 “Collective Intelligenc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llective\\_intelligence](https://en.wikipedia.org/wiki/Collective_intelligence)

자료교환이 쉽지 않고, 인적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은 전문가들 간의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은 서로 다른 공간 내에 있는 전문가들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상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sup>2</sup> 그래서 레비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전문가 지성들의 협업을 ‘지성의 공유화’(communisme de l’intelligence)라고 표현한 바 있다.<sup>3</sup>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집단지성이 정치, 외교, 경제적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의 능력은 공유 지식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지식인’, ‘유튜브’의 강의 및 정보 영상 등은 과거 백과사전이나 학교가 담당했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과거 오랫동안 일부 지식인층만 소유했던 지식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집단지성은 지식을 더욱 빨리 유통, 축적,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을 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만이 소유했던 지식을 대중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유 지식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심각한 폐해를 남기까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모자란 지식은 신용도가 떨어져 지식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왜곡된 지식을 생산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과정에 전문적 지식은 전문성을 상실하고, 유통을 목적으로 전문지식이 변형되고

2 최항섭,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 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2009), 287-322.

3 윗글, 308.

4 최항섭은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고 ‘정보’를 가공되지 않은 지적 가치로, ‘지식’을 가공된 지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내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논리가 모자란 지식을 ‘낮은 지식’(lower knowledge),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지식을 ‘높은 지식’(higher knowledge)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약한 지식’(weak knowledge), 후자를 ‘강한 지식’(strong knowledge)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항섭,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2008), 223-54.

축소되어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전문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몰두한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근동의 종교전문가들이 생산하고 유통한 종교적 지식을 집단지성이라는 관점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대근동에는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유통망이 없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는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서신이나 보고서와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다량의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생산하고 복제하고 보관하고 유통하였다. 이 과정에 종교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 반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왕과 제국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였으며, 전문영역을 융합하여 개별 전문 영역의 능력만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특별히 왕과 제국의 미래에 걸쳐있는 암운을 제거하고 대안적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종교전문가들은 협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교전문가들의 협력을 집단지성의 관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집단지성의 개념과 고대근동의 종교적 지식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종교전문가들의 협업과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집단지성과 종교적 지식

### 1)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데이비드 웨슬러(David Wechsler)는 집단지성을 “개인들이 그들의 자원을 한곳에 모음으로써 과

업의 성취 수준을 높이려는 모든 협력 활동”으로 정의한다.<sup>5</sup> 삐에르 레비는 집단지성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이라고 주장한다.<sup>6</sup> 그에 따르면 집단지성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집단의 협력을 위해서는 ‘환대’(hospitality)가 필요하다. 그는 룯과 소돔 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룯이 의인인 이유는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님을 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레비는 이처럼 인간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집단지성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며, ‘관심’은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는 또한 ‘관계’의 개념도 중요시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가족이나 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왔다. 따라서, 집단지성은 개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sup>9</sup> 이처럼 집단지성의 중요한 속성인 ‘공유’와 ‘협업’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상호관계 그리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집단지성은 인간사회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존재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식은 개인의 성취물이 아닌 공동체의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 에밀 뒤르켁(Emile Durkheim)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집단지식’(collective conscience)이라는 개념을 선보이며, 사회 공동체의 지식

- 
- 5 D. Wechsler, “Concept of Collective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6 (1971), 905. 권찬호, 「집단지성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8), 29에서 재인용.
  - 6 피에르 레비,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권수경 옮김), (서울: 문학과학성사, 2001), 38. 원제는 Pierre Lévy, *L'intelligence collective. Pour une anthropologie de cyberspace* (Paris: La Découverte, 1997).
  - 7 윗글, 47-53.
  - 8 김명준/이기중,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에서 본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2010), 132.
  - 9 윗글, 133.
  - 10 최항섭, 윗글(2009), 288.

은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개인의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단의식이란 사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게 하는 상호 공유한 믿음과 사상 그리고 태도이다. 뒤르켄은 집단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식이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것과 공유되고 상호 간의 유사점 때문에 기계적인 연대감(mechanical solidarity)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 지식, 경험을 공유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sup>11</sup>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집단개념의 사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12</sup>

한 사람의 지갑이 아닌 다수가 함께 지출하는 잔치가 더 나은 것처럼,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함께 모여 다수가 되면,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선(善)보다 나올 수 있다. 다수 속의 각 개인은 덕과 슬기를 나눌 몫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모이면 마치 많은 발과 손 그리고 여러 개의 감각을 지닌 한 사람처럼 된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기질이 합하여 만들어진 한 형상(인물)이다. 그러므로 음악과 시를 아는 한 개인보다는 다수가 더 나은 재판관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그들 중 일부는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이다.<sup>13</sup>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집합 개념과 오늘날의 집단지성과는 차이

---

11 에밀 뒤르켄,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혜숙, 노치준 옮김), (서울: 한길사, 2020). 원제는 Émile Durkheim,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 le système totémique en Australie* (Paris, 1912).

12 Jeremy Waldron, "The Wisdom of the Multitude: Some Reflections on Book 3, Chapter 11 of Aristotle's Politics", *Political Theory* 23 (1995), 563-84.

13 Aristotle, *Politics*, Translated by Benjamin Jowett, Book 3, Part XI. (<http://classics.mit.edu/Aristotle/politics.3.three.html>)

가 있다.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의 인구와 오늘의 집단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그리스의 집단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그 크기나 기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집단지성을 사이버 공간에서 파생된 개념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이 공존하면서도 공통의 주제를 논의하는 자유로운 마당”이라면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sup>14</sup> 권찬호가 주장하듯이 “집단지성 현상 자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마도 우주가 생성된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sup>15</sup> 집단지성은 정보화 시대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늘 존재해 왔던 삶의 원리라 할 수 있다.

## 2) 종교적 지식의 유형

주전 18세기의 마리 왕국과 주전 7세기의 신아시리아 도서관에서 발견된 토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근동의 종교적 자료는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하다.<sup>16</sup>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서기관들은 징조들(omens)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였다. 고대근동의 종교적 지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전승되었는데, 크게 다섯 가지 전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천상의 현상에서 징조를 발견하여 해석하는 ‘천문 점술학’(tupšartu/툽샤르투), 동물의 간이나 내장을 관찰하여 징조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간 점술학’(bārūtu/바루투), 질병을 진단하고 약재를 처방하는 ‘진단 치료학’(asūtu/아수투), 질병의 물리적, 정신적 배경을 파악하고 중

14 김성환, 「회남자. 고대 집단지성의 향연」(서울: 살림, 2007), 44.

15 권찬호, 윗글, 31.

16 고대근동의 종교적 자료는 「마리왕국문서」(Archives royales de Mari) 시리즈와 「아시리아왕국문서」(State Archive of Assyria) 시리즈를 통해 계속 출간되고 있다.

교적 요소를 치료에 적용하는 ‘치유 주술학’(āšipūtu/아쉬푸투), 그리고 제 의에서 사용된 애가나 비가를 창작하거나 낭송하는 ‘애가학’(kalūtu/칼루투)이다.<sup>17</sup>

(1) 천문 점술학(ṭupšartu/툽샤르투)

천문점술은 천상의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는 점술 신탁의 한 형태이다.<sup>18</sup> 천문 점술가들은 하늘에서 관찰한 것을 언급할 때 ‘하늘의 기록’(šitir šamê) 혹은 ‘궁창의 기록’(šitir burūmê)이라고 하였다.<sup>19</sup>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신들이 천체의 징조(ittu)를 통해 인간의 미래와 운명을 예고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주전 20세기부터 수집되어 주전 7세기경에 최종 편집된 징조 모음집인 ‘에누마 아누 엔릴’(Enūma Anu Enlil, ‘아누와 엔릴의 때’)에 잘 반영되어 있다.<sup>20</sup> 이 모음집에는 징조들이 “(하늘에서) A가 발생하면, (땅에서) B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1</sup> 이 모음집에 따르면 천상의 징조는 미래 사건의 원인을

17 S.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XIII. 이하 SAA 10으로 약함; Francesca Rochberg, *The Heavenly Writing: Divination, Horoscopy, and Astronomy in Mesopotamian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5-6; Mogens Trolle Larsen, “The Mesopotamian Lukewarm Mind: Reflections on Science, Divination and Literacy”, F. Rochberg-Halton (ed.),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Phil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Presented to Erica Reiner*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7), 203-25.

18 Francesca Rochberg-Halton, *Aspects of Babylonian Celestial Divination: The Lunar Eclipse Tablets of Enūma Anu Enlil* (AfO 22; Horn: Ferdinand Berger & Söhne, 1988), 8.

19 CAD Š/3, 146

20 H. Hunger and D. Pingree, *Astral Sciences in Mesopotamia* (Leiden: Brill, 1999), 5-6. 초기 바빌로니아의 천문 관찰 기록은 천문학 개요집인 MUL.APIN에 수록되어 있다. MUL.APIN은 징조보다는 다양한 천체 현상을 체계화하고 목록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MUL.APIN에는 별과 행성의 위치와 이름, 시간과 계절에 따른 이동 경로, 관찰 가능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MUL.APIN의 후반부는 천체의 징조를 다루기도 한다. Rochberg, 윗글, 6-7.

21 H. Hunger, *Astrological Reports to Assyrian Kings* (SAA 8;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규명하기보다는 다가올 불운에 대해 경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sup>22</sup>

신아시리아에서 천문점술 전문가는 ‘툽샤르 에누마 아누 엔릴’(tupšar enūma Anu Enlil)로 불렸다. 이 명칭에 사용된 ‘툽샤르’는 서기관 혹은 토관 기록자를 뜻하는 ‘툽샤루’(tupšarru)를 지칭한다. 그는 천상의 징조를 관찰하고 해석한 천문 전문가였다. 하지만 툽샤르는 천체의 운동뿐 아니라 지상의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징조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데도 전문가였다. 천문 점술사들이 신아시리아의 왕 에살합돈과 아슈르바니팔에게 보낸 편지에는 천문현상뿐 아니라 불운한 징조를 피하기 위한 의식과 주술의 기록들이 담겨 있다. 툽샤루는 간 점술뿐 아니라 다른 전문적 점술에도 능숙한 전문가였다.<sup>23</sup>

천문 관찰 기록은 서신이나 보고서(u'ilātu) 형식으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에누마 아누 엔릴’의 징조들은 전반적으로 왕과 왕국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들 편지와 보고서에는 불운한 징조를 제거할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히 남부르비(namburbi) 제의가 추천되었는데, 이 제의에 왕이 참여할 것을 적극 권하였다. 신아시리아의 발라시(Balasi)라는 천문 점술사는 지진이 발생하자 한 편지에서 왕에게 “지진을 일으킨 (에아[*Ea*] 신께서) 액운을 피할 제의도 만드셨습니다”라고 쓰고 있다.<sup>24</sup> 또 다른 천문 점술사 벨우세집(Bel-ušēzib)은 일식이 예견되자 사전에 남부르비 제의를 실시해 왕과 왕국에 닥칠 액운을 방지할 것을 권하였다.<sup>25</sup> 일식의 징조가 심각하게 불길한 경우 ‘대리왕 제의’(šar pūhi)가

---

Press, 1992), XIII. 이하 SAA 8로 약함.

22 윗글, XIII. ‘에누마 아누 엔릴’의 구성과 장별 내용에 대해서는 Rochberg, 윗글, 66-78을 참조하라.

23 A. Leo Oppenheim, “Divination and Celestial Observation in the Last Assyrian Empire”, *Centaurus* 14 (1969), 99.

24 SAA 10 56. 앞의 숫자는 시리즈 번호, 뒤의 숫자는 편지 번호를 뜻함.

25 SAA 10 114.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 제의에서 대리 왕은 진짜 왕이 당할 불운을 안고 죽어야 했다. 대리 왕이 사망하면 마치 왕이 죽은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매장했다.<sup>26</sup>

(2) 간 점술학(*bārûtu*/바루투)

간 점술은 희생 동물(일반적으로 어린 양)의 간을 관찰하여 점을 친다.<sup>27</sup> 간의 관찰과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신이 비밀스럽게 계시한 ‘점술사의 비밀(혹은 보물)’(*niširti bārûti*)로 여겨졌다.<sup>28</sup> 징조 모음집은 이러한 보물(비밀)을 모은 것이며, 이 때문에 간은 ‘신들의 서판’(*tuppu ša ili*)으로 불리기도 하였다.<sup>29</sup>

간 신탁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징조의 의미나 운명 혹은 기타 문제로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탁 전문가들을 통해 태양과 정의의 신으로 알려진 샤마쉬(*Šamaš*)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태양신은 그 대답을 동물의 내장을 통하여 답변한다. 이때 신탁 전문가인 바루는 징조 모음집이나 징조 보고서들을 참조해 특정 순서로 내장을 조사한다. 내장에서 발견된 특정한 표시가 질문에 대해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를 해석해, ‘예’ 또는 ‘아니오’와 같은

- 
- 26 S. Parpola, *Letters from Assyrian Scholars to the Kings Esarhaddon and Assurbanipal*, Vol. 2. (Kevelaer: Butzon & Bercker, 1983), xxiv.
- 27 아카드어로 ‘간’은 ‘아무투’(*amûtu*)인데, ‘말씀’을 뜻하는 ‘아바투’(*awātu*)를 연상케 한다. 고바벨론 시대에는 ‘아바투’(*awātu*)가 ‘아마투’(*amātu*)로 읽히기도 하였으며, 간 징조가 ‘아무투’(*amûtu*)나 ‘아무바투’(*amuwātu*)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David Brown, “Astral Divination in the Context of Mesopotamian Divination, Medicine, Religion, Magic, Society, and Scholarship”, *EASTM* 25 (2006), 98.
- 28 U. Jeyes, *Old Babylonian Extispicy* (Istanbul: Nederland Historisch-Archeologisch Instituut te Istanbul, 1989), 18.
- 29 U. Jeyes, “Divination as a Science in Ancient Mesopotamia”, *Jaarbericht Ex Oriente Lux* 32 (1991-92), 27; Ivan Starr, *The Rituals of the Diviner* (Bibliotheca Mesopotamica 12; Malibu: Undena, 1983), 30, 16-17줄과 53-57줄.

최종 답변을 결정하여 선언한다.<sup>30</sup> 하지만 어떤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pitruštu*) 믿을 수 없는(*nipḥu*) 경우, 검증 신탁(*piqittu*)을 행하거나 제3의 신탁을 시행하기도 하였다.<sup>31</sup>

간 점술은 ‘바루’(*bārū*)의 전문영역이었는데, 때로 간뿐 아니라 폐, 심장, 신장을 검사해 미래를 예측하였다. 바루의 역할은 양에게 손을 뺀 어 살피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간을 검사하는 것(*lipit qāti hiniq immeri naqē nēpešti bārūti*)이었다.<sup>32</sup> 신아시리아의 궁전에서 간 점술은 왕이 적의 동향을 알고 싶을 때, 현직 관료나 임용 예정 관료들의 충성도를 알고 싶을 때, 혹은 왕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실시되었다. 이 문서들은 왕과 바루 사이에 정규적인 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바루는 왕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에 위치해 언제든지 점술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신아시리아 궁정에서의 바루의 지위와 그의 기술에 대한 존중심은 왕에게 관료를 추천하는 편지가 잘 보여주고 있다.<sup>33</sup>

### (3) 진단 치료학(*asūtu*/아수투)과 치유 주술학(*āšipūtu*/아쉬푸투)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약과 의학은 아주 중요한 분야였다. 신아시리아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의료편람은 진단편람(SA.GIG)<sup>34</sup>과 치료편

30 E. Leichty, “Ritual, ‘Sacrifice’, and Divination in Mesopotamia”, J. Quaegebeur (ed.), *Ritual and Sacrifice in the Ancient Near Eas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from the 17<sup>th</sup> to the 20<sup>th</sup> of April 1991* (OLA 55; Leuven: Uitgeverij Peeters en Departement Oriëntalistiek, 1993), 237.

31 Jeyes, 윗글(1991-92), 26.

32 윗글, 23.

33 SAA 10 160. “왕께 합당한 유능한 학자 20명은 모두 왕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나의 왕이 시어! 그들은 왕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그들을 소집해 나의 주 왕께 보내드리겠습니다.” SAA 10 160: r.35-37.

34 진단편람은 수메르어로 SA.GIG, 아카드어로 *sakikkú*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증상들’이라

람(처방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편람은 병의 진단과 예후(prognosis)를 진술하고 있지만 치료기법은 담고 있지 않다. 진단편람은 주로 환자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사용된다. 이 편람은 환자의 예후를 대부분 “죽는다.” 혹은 “산다.”로 표현하였다. 치료편람은 치료를 위한 처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질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처방전과 함께 취할 사항들의 목록이 기술되어 있으며, 때로 예후가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의료진은 ‘약사’, 혹은 ‘의사’를 의미하는 ‘아수’(asú)와<sup>35</sup> ‘주술사’ 혹은 ‘마술사’를 뜻하는 ‘아쉬푸’(āšipu)이다.<sup>36</sup> ‘아수’는 병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처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치료 전통을 중시한다. ‘아쉬푸’는 병이 초자연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의와 기도로 치유하려는 마술적 치유 방법을 사용하였다.<sup>37</sup> 에살하돈은 ‘아수’ 우라드나나(Urad-Nana)와 ‘아쉬푸’ 마르독샤킨슈미(Marduk-šakin-šumi)에게 치료를 부탁하였는데, 이때 마르독샤킨슈미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내 주 왕에게 건강이 있기를! 나부와 마르독이 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께서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눈을 뜨기조차 힘들며, 마음이 무척 우울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몸에 있는 열 때문입

---

는 뜻이다. N. P. Heeßel, “Diagnosis, Divination, and Diseas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Rationale behind the Babylonian *Diagnostic Handbook*”, H. F. J. Horstmannshoff and M. Stol (eds.), *Magic and Rationality in Ancient Near Eastern and Graeco-Roman Medicine* (Studies in Ancient Medicine 27; Leiden: Brill, 2004), 100.

35 CAD A/2, 344-347, 351-52.

36 CAD A/2, 432-436. 아쉬푸는 “주술을 행하다”를 뜻하는 *wāšapu*에서 파생되었다. CAD U/W, 406.

37 V. Kinnier-Wilson, “Medicine in the Land and Times of the Old Testament”, T. Ishida (ed.),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Winona Lake: Eisenbrauns, 1982), 338.

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아수르, 사마시, 나부, 마르  
дук 신들이 왕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왕의 병이 떠나고, 모든 것  
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께서는 신  
하들과 함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sup>38</sup>

이처럼 왕을 치료할 때 아수와 아쉬푸가 함께 치료과정에 참여했  
다. 비록 아수는 오늘날의 의사와 약사처럼 질병을 객관적으로 해결하  
려고 하였지만, 아쉬푸처럼 병의 원인과 치료를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  
에서 찾기도 하였다. 때문에 아수와 아쉬푸의 역할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기도와 축귀와 같은 종교적인 치유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들의 치료 방법은 일종의 '신앙 의술'이자 '종교 의학'이라 할 수 있  
다.<sup>39</sup> 하지만 이들이 주술적 의료방식에 의존했다 해도, 진단편람과 같  
은 의료문서를 읽고, 장문의 주문(incantation)을 낭독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나 구전 전승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sup>40</sup> 따라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처럼 글을 읽고 쓰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궁  
궐에서 활동했던 의료진들은 궁정 학자(*ummānu*)가 되기도 하였다.

#### (4) 애가학(*kalātu*/칼루투)

'칼루'(*kalū*, 수메르어로 *gala*)는 보통 제물을 바칠 때 신상 앞에서 악기

---

38 Jean Bottéro, *Everyday Life in Ancient Mesopotamia*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173-74.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근동의 점술」(서울: CLC, 2015), 109에서 재인용.

39 Henry E. Sigerist, *Medicine and Human Welfa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1), 2.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황상익 옮김), (서울: 한길사, 2008), 242. 원제는 H. E. Sigerist, *Civilization and Disea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43).

40 아쉬푸는 주술을 펼치기 위해 '우투쿠 렘누투'(*Utukkū Lemnūtu*) 시리즈와, 슈르푸(*Šurpu*)와 마클루(*Maqlū*) 시리즈, 찬송집과 기도문 그리고 백과사전(*Har-ra*)과 어휘집을 복사해 공부하여야 했다. P. -A. Beaulieu, "Late Babylonian Intellectual Life", B. Leick (ed.), *The Babylonian World* (London: Routledge, 2007), 475.

연주에 맞추어 ‘에메살’(Emesal)을 낭독하였다. 에메살은 도시들과 신전들의 파괴와 멸망을 애도하는 애가(lament)이다. 에메살은 ‘발락’(Balag, 하프/드럼 [노래]), ‘에르세마’(Eršema, 케틀드럼[kettledrum]의 눈물/애가), 에르샤후가(Eršahuga, 마음을 진정시키는 애가), 슈일라(Šuilla, 손을 들기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쉬르남슈(Sirnamsub, 주술)이라는 하부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 발락에는 탄원이 기술되어 있는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며, 도시들의 파괴 상황이 기술된다. 에르세마는 길이가 짧은 노래로서 신전이 파괴될 묵시를 기술한다. 에르세마는 발락의 결론부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 중 에르샤후가는 탄식이 포함된 개인 기도문으로서 신아시리아의 궁정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왕이 신의 공훈과 지지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용되었다. 슈일라는 최대 50줄까지 이어지는데, 신을 향한 탄원과 신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sup>42</sup>

크레머(S. M. Kramer)에 따르면 에메살은 본래 학자들의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후대에 칼루와 같은 종교전문가들에 의해 제의에서 재사용되었다고 한다.<sup>43</sup> 수메르에서 기인한 에메살은 문학적 특성이 강했으나, 후대, 특히 신아시리아 시대에 들어서서는 제의의 기도문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그런데도 에메살은 본질적으로 문학과 학문성이 뛰어나 다른 신탁 자료보다 문학적 가치가 높다. 에메살이라

41 U. Gabbay, “The Performance of Emesal Prayers within the Regular Temple Cult: Content and Ritual Setting”, K. Kaniuth et al. (eds.), *Tempel im Alten Orient* (CDOG 7: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3), 103.

42 A. Löhnert, “Manipulating the Gods: Lamenting in Context”, K. Radner and E. Rob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04.

43 S. M. Kramer, “BM 96927: A Prime Example of Ancient Scribal Redaction”, Tzvi Abush et al. (eds.) *Lingering over Words: Studies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in Honor of William L. Moran* (HSS 37: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53.

44 U. Gabbay,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Sumerian Emesal Litanies in Their Historical and Cultic Contexts”, *KASKAL* 16 (2019), 202-203.

는 단어 자체가 ‘정제된 언어’(refined language)라는 뜻이다.<sup>45</sup> 에메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칼루 자신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신아시리아 시대에 칼루는 신과 왕 사이에서 중재의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원시를 읊으며 분노한 신들의 마음을 달랬다. 왕들은 손을 높이 들고 슈일라(*šūilla*) 기도를 암송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다.<sup>46</sup> 아슈르바니팔 왕은 칼루가 행한 칼루투를 지식으로 간주하였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한 문서의 간기(刊記, colophon)에 “나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복사물로부터 에아(Ea) 신의 지혜(*nēmequ*), 즉 칼루투(*kalītu*)의 총서이자 현인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신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에 적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47</sup> 칼루투는 간 점술사의 바루투와 마찬가지로 샤마쉬와 아다드 신의 지혜로 분류되었다.<sup>48</sup> 칼루의 업무는 제의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칼루는 천문점술, 간 점술과 같은 다른 종교적 지식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의학과 천문학 같은 다른 분야의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다.<sup>49</sup> 칼루는 필사(copy)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타 전문 분야의 문서들을 필사하였으며, 왕에게 올릴

---

45 CAD E, 148.

46 R. Achenbach, “Zum Sitz im Leben mesopotamischer und altisraelitischer Klagegebete. Teil I: Zum rituellen Umgang mit Unheildrohungen in Mesopotamien”, *ZAW* 116 (2004), 365. 슈일라 기도는 ‘신의 부름’, ‘찬양’ 그리고 ‘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원이 끝나면 찬양의 형태로 응답이 주어진다. Tzvi Abusch, “The Promise to Praise the God in Šuilla Prayer”, Agustinus Gianto (ed.), *Biblical and Oriental Essays in Memory of William L. Moran* (biblica et orientalia 48;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5), 1-10을 참조하라.

47 H. Hunger, *Babylonische und assyrische Kolophone* (AOAT 2; Kevelaer: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8), 102, 간기 번호 328, 13-16줄.

48 W. G. Lambert, “Catalogue of Texts and Authors”, *JCS* 16 (1962), 64-65, 1-4줄.

49 SAA 10 160.

학술적인 보고서와 서한을 작성해 발송하기도 하였다.<sup>50</sup>

### 3. 종교전문가들의 협업과 집단지성

고대 근동의 ‘점술학’(bārūtu)은 현대 지식사회의 지식 생산과 유통의 단면을 보여준다. 점술학은 점술사와 점술 자료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점술사는 오늘날의 지식근로자처럼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취급한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징조를 모았다. 그들은 오늘날 컴퓨터나 인터넷 자료에 버금가는 양의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였다. 그들은 정보를 산출하기도 하고 축적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를 분류하고 해석하기도 하였다.<sup>51</sup> 이러한 방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과학적 체계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방대한 목록으로 자료를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점술학은 분류학에 기반한 종교적 지식(religious knowledge)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sup>52</sup>

50 U. Gabbay, “The kalû Priest and kalûtu Literature in Assyria,” *Orient* 49 (2014), 115. 칼루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지위가 낮았던 것 같다. 칼루는 주로 치유 주술가 아쉬푸와 협업을 하였는데, 대개 아쉬푸가 주도하였고 칼루는 보조자에 머물렀다. 신아시리아의 전문 학자들의 목록(SAA 7, 1)에는 천문 점술사, 치유 주술가, 간 점술사, 진단 치료사 다음에 칼루가 위치한다. 그의 뒤에는 외국 출신의 주술가들(*dāgil-iššūri*)과 애굽의 학자들과 서기관들만 위치할 뿐이다. 가베이(U. Gabbay)는 칼루가 주로 바빌로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Gabbay, 앞글(2014), 118.

51 점술사들은 징조들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분류해서(*mussû*) 해석(설명)하였다(*ḥakāmu*). 자료들은 ‘참’(kittum)/‘유효한’(kānu) 혹은 ‘그렇지 않은’(lā kānu) 자료들로 분류되었다. 이들 자료를 기록한 토관들은 ‘확인’(sanāqu) 절차를 밟아야 했다. S. Richardson, “Introduction: Scholarship and Inquiry in the Ancient Near East,” *JANEH* 2 (2015), 103.

52 A. Winitzer, “The Divine Presence and Its Interpretation in Early Mesopotamian Divination”, A. Annus (ed.), *Divin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Signs in the Ancient World*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0), 185.

점술가들은 불운한 미래를 회피하고 성공적으로 대안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관하여 같은 징조가 반복될 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점술사들은 단순한 마술사나 주술사가 아니라 종교 전문가(religious specialist)라 할 수 있다.<sup>53</sup> 이들은 자연의 관찰을 통해 얻은 징조들을 기록하고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규합한 정보를 정치, 경제, 문화를 지탱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오펜하임(A. L. Oppenheim)은 점술사들을 ‘학자’(ummānu/움마누)라 칭하기도 하였다.<sup>54</sup> 이들 중 일부, 특히 아시리아의 수도에 거주하던 학자들은 왕실에 나아가 왕의 학자들(ummāni lē’ūti)이 되어 왕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up>55</sup> 이들은 국가의 중요 대사를 결정할 때 전문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일하였다. 이들 학자집단에 속한 대표적인 전문가들은 ‘천문 점술사’(tuṣarru/투스샤루), ‘간 점술사’(bārû/바루), ‘진단치료사’(asû/아수), ‘주술치유사’(āšipu/아쉬푸), ‘애가 전문가’(kalû/칼루)였다.<sup>56</sup> 이들은 새로운 문서와 사본으로 왕실 도서관을 유지하고 확장했으며 왕실 비문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왕의 특별한 사명을 맡아 외교관과 대사로

53 터너(V. W. Turner)는 종교전문가를 “어떤 유형의 제의, 혹은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교적 체계의 일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V. W. Turner, “Religious Specialists: I Anthropological Study,”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13 (1968), 437. 이에 따라 그라비(L. L. Grabbe)는 ‘점술가’, ‘예언자’,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을 종교전문가로 부르고 있다. Lester L. Grabbe, *Priests, Prophets, Diviners, Sage: A Socio-Historical Study of Religious Specialists in Ancient Israel*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1-19.

54 A. Leo Oppenheim, “Perspectives on Mesopotamian Divination”, *La divination en Mésopotamie ancienne et dans les régions voisines: XIV<sup>e</sup>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Srasbourg, 2-6 juillet 1965)* (CRRAI 1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40.

55 SAA 10, XVI.

56 SAA 10, XIV.

파견되기도 하였다.<sup>57</sup>

왕의 ‘움마누’(학자)이자 천문 점술가였던 마르둡샤픽제리(Marduk-šāpik-zēri)는 이슈르바니팔 왕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자신이 학자가 되기까지 받은 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저는 부친의 업무인 애가 기법을 습득하였습니다. 저는 학업에 몰두하면서 (애가) 모음집에 따라 낭송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 입을 닦는 의식과 궁중 정결 의식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검사했습니다. 저는 에누마 아누 엔릴을 완독했습니다. [...] 그리고 천문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슈마이즈부와 [...]무와 니그딤디무와 슈마 알루도 완독했습니다.<sup>58</sup>

이 편지는 천문 점술사가 천문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였음을 알려준다. 그는 제의에서 애가와 비가를 낭송하는 ‘칼루투’를 습득하였다. 그는 또한 환자를 검사했는데, 이는 진단과 수술 활동이 포함된 의료행위를 뜻하는 ‘아수투’와 ‘아쉬푸투’에 대한 지식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간 점술인 ‘바루투’에도 능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전문가들의 기술은 상당 부분 상호 보완적이었다. 왜냐하면 한 기술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다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간 점술은 천문점술을 통해 얻은 징조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검증하고, 해석이 다양할 경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하였다. 때문에, 종교전문가들은 주 전문 분야뿐 아니라 하위의

---

57 SAA 10, XX. 바벨론의 의사 라바샤마르두크(Rabā-ša-Marduk)는 외교사절의 일원으로 아나톨리아로 파견된 바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의사였는데, 주전 1285년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로 파견되었다. 카렌 라드너, 「바벨론의 역사」(서경의 옮김), (서울: 더숲, 2021), 119-22. 원제는 Karen Radner, *A Short History of Babylon* (London: Bloombury Academic, 2020).

58 SAA 10 160: 36-42.

전문 분야에도 능통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 분야들을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에 통합된 일부로서 생각해야 한다. 이들은 통합된 사고 체계의 일부로서 하위 전문 분야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호 작용하고 있었다.<sup>59</sup> 이처럼 학자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함께 습득해야 했다. 하지만 한 분야에 집중해야 했던 것은 각 전문 분야의 범위가 넓고 그 기술이 다양하여 짧은 시간에 숙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sup>60</sup>

에살하돈과 이슈르바니팔 시대의 궁중 학자였던 이사르슈무에레쉬(Issār-šumu-ēreš)는 왕의 수석 서기관(*rab tupšarrē*)으로서 천문 신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서 궁중에서 활동했던 일곱 왕의 천문 신탁가 중 첫째 위치를 차지하였다.<sup>61</sup> 하지만 그는 신전의 제의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종교 축제와 제물을 드릴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였다.<sup>62</sup> 그는 이 임무를 궁중의 다른 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자기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시행하였다.<sup>63</sup>

에살하돈의 궁중에서 전문가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왕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사르슈무에레쉬는 한 편지에서 왕의 피부병이 완치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나의 주 왕께서는 이 병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59 S. Parpola, "Mesopotamian Astrology and Astronomy as Domains of Mesopotamian 'Wisdom'", H. D. Galter (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razer Morgenländische Studien 3; Graz, 1993), 52.

60 U. Koch-Westenholz, *Mesopotamian Astrology: An Introduction to Babylonian and Assyrian Celestial Divination* (K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1995), 58.

61 SAA 7 1, 1줄, 8줄

62 SAA 10 19, 20.

63 SAA 10 18-20.

절성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의 주 왕께서는 신들을 경외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는데, 나의 주 왕과 그 자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께서 처분하실 텐데, 그것은 좋습니다. 어딘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그의 날이 짧을 것이지만, 늘 아픈 자는 그의 날이 길 것이다.”<sup>64</sup>

에살하돈과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활동했던 아다드슈무우추르(Adad-šumu-ušur)는 의학 지식이 풍부해 왕과 왕족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는 왕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을 진단 치료사(*asû*)나 주술 치유사(*āšipu*)로 소개하지 않고 천문 점술사나 서기관으로 소개하였다.<sup>65</sup> 그는 다양한 제의를 통해 왕이 재앙, 질병, 죽음의 위협으로 벗어나도록 하였다. 천문 점술가로서 일식을 관찰하고 대리 왕 제의를 통해 악운을 비켜나가게 하였다.<sup>66</sup>

왕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은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했다. 이는 불길한 징조를 피하기 위한 ‘대리 왕 제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대리 왕 제의는 어떤 한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종교전문가가 집행하였다. 우선 천문 점술사나 간 점술사들은 자신들이 발견할 불운한 징조를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주술 치유사(*mašmaš* 혹은 *āšipu*)가 대리 왕의 대관식을 집행하였고, 대리 왕의 사망과 함께 불운한 징후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여기고 진짜 왕에게 정결 예식을 거행한 뒤 다시 왕권을 행사하게

64 SAA 8 1.

65 K. Šašková, “Adad-šumu-ušur and his Family in the Service of Assyrian Kings”, P. Charvát and P. M. Vlčková (eds.), *Who Was King? Why Was Not King?* (Pragu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 2010), 122.

66 SAA 10 377.

하였다.<sup>67</sup>

다음의 편지에서 천문 신탁가인 이사르슈무에레쉬는 불행한 징조가 다가올 것을 예견했다. 그는 다가오는 일식이 왕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했다. 다른 학자들도 이를 왕에게 보고했으며, 이들과 협력하여 불행한 징조를 피할 의식을 계획하고 수행하기로 하였다.<sup>68</sup>

당신의 종들인 이사르슈무에레쉬, [우라드]-에아 및 [마르둑]-샤킨-수미가 우리 주께. 우리 주가 만수무강하시기를! 나부와 마르둑이 우리 주를 축복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저희에게 '제29일에 일식이 발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적절한 액막이 제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왕좌에 앉아 당신의 악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sup>69</sup>

하지만 이 일식이 왕과 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한 편지는 그 결과가 불분명함을 보고하고 있다.<sup>70</sup> 이 편지는 아무리 권위가 있는 전문가의 관찰이라도 반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간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종교전문가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관찰과 분석 자료를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거나, 상호 경쟁하면서 왕의 결정과 정책에 이바지하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종교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은 통치자들의 지

---

67 M. A. Beek, "Der Ersatzkönig als Erzählungsmotiv in der altisraelitischen Literatur", *Volume de Congrès: Genève 1965* (VTSup 15; Leiden: Brill, 1966), 26.

68 SAA 10 1, 4, 11, 12.

69 SAA 10 25.

70 SAA 10 26. 때로 왕은 학자들 간에 익명으로 관찰 결과와 해석을 교류하게 해 왕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토론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 L. Verderame, "A Glimpse into the Activities of Experts(UMMĀNU) at the Assyrian Royal Court", S. Gaspa et al, (eds.), *From Source to History: Studies on Ancient Near Eastern World and Beyond* (AOAT 412; Münster: Ugarit-Verlag, 2014), 718-24.

위를 합법화하고 왕국의 통치를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통치지식’(Herrschaftswissen)의 형태로 나타났다. 통치지식은 왕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으로서 국가를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왕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지적 자질을 포함한다.<sup>71</sup> 이 경우 점술은 신이 왕과 은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왕은 신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임을 확인받았다. 이처럼 점술자료는 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자료가 되었다. 긍정적인 점괘(*annu kēnu*)는 신(神)이 왕에게 보이는 호의의 표시였으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왕은 신적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통치자의 합법성과 권위를 고수하기 위해 점술 자료를 보관하였다. 이처럼 점술의 결과는 일회용이 아니라 지식의 형태로 축적되어 후대에도 사용되었다. 특별히 왕과 왕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자료로 사용되었다.

종교전문가들의 집단지성적 특성은 시리즈(*iskāru*)로 편집된 징조 모음집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히 ‘에누마 아누 엔릴’이라는 천문 기록과 ‘바루투’로 불리는 간 점술 기록, 그리고 ‘숨마 알루’(*Šumma ālu*)와 ‘숨마 이즈부’(*Šumma izbu*)라는 지상의 변화 기록에 잘 반영되어 있다.<sup>72</sup> 이 문헌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천문과 지상의 관찰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늘과 땅의 이상 징조에 대처할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처 방안은 주술적 성격이 강하지만 행성들의 이동과 변화 그리고 자연현상의

71 B. Pongratz-Leisen,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9), 5. 고대 중국에서도 천문점술은 제왕지학(帝王之學)으로서 왕도의 실현과 의례의 준거로 인식되었다. 천문 점술가는 조정 관료의 일원이었으며 황궁 안에서 의식을 담당하였다. 이문규, “고대 동양의 천문사상-하늘과 땅의 대응관계를 통하여”, 송두중/안영숙 편집, 『한국천문력 및 고천문학-태양력 시행 백주년 기념 워크샵 논문집-』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 1996), 106.

72 S. M. Maul, “Omina und Orakel, A Mesopotamien”, *RIA* 10, 69; E. M. Zuesse, “Divination”, *EncRel* 4, 375-382.

관찰은 정확하여 달력의 작성이나, 상업과 농업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다.<sup>73</sup> 이처럼 고대 근동의 종교전문가들은 집단지성을 이루는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협업할 때 자신의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도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또한 협업하는 과정에 한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배우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전문가들이 협업할 때 종교 지식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여 졌으며,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전 영역에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 4. 결론

고대근동, 특히 신아시리아에서 점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 수단, 즉 통치지식(Herrshaftswissen)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점술을 통해 얻은 관찰 자료와 해석 자료는 권위 있는 지식으로 간주 되었다. 이 지식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편지나 보고서의 형태로 왕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어 후대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발견한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대근동의 학문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신아시리아 왕들은 왕과 왕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ummānu)로 불리는 일군의 종교 전문가들을 궁중에 고용하였다. 이들은 ‘천문 점술사’(tupšarru), ‘간 점술사’(bārū), ‘진단 치료사’(asū), ‘주술 치유사’(āšipu), ‘애가 전문가’(kalū)였다. 이들은 전문 학자집단을 형성하였으며, 협업을 통하여 왕과 왕국에

73 Rochberg-Halton, 윗글(1988), 8.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였다.

고대근동의 ‘점술학’(bārītu)은 오늘날의 지식사회의 이념과 유사점이 있다. 고대근동의 종교전문가는 현대의 지식근로자처럼 많은 정보를 취급하는 전문가였다. 그들은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며, 지식을 산출하고 축적하고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규합한 정보는 정치, 경제, 문화를 지탱하는 주요 자료가 되었다. 점술 종사자들은 지식인으로서 왕과 왕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다가올 위험을 제거하고 불행한 미래를 바꾸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전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공동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근동의 점술 자료는 당시 지식인이었던 종교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축적한 연결지능이자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 유대관계와 상호교류를 기반한 이들의 ‘공유’와 ‘협업’은 고대근동 집단지성 체계의 일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승일, 「이스라엘과 고대근동의 점술」 (서울: CLC, 2015).
- 권찬호, 「집단지성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8).
- 김명준·이기중,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에서 본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2010), 129-50.
- 김성환, 「회남자. 고대 집단지성의 향연」 (서울: 살림, 2007).
- 에밀 뒤르켐,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혜숙, 노치준 옮김) (서울: 한길사, 2020). 원제 Émile Durkheim,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 système totémique en Australie* (Paris, 1912).
- 이문규, “고대 동양의 천문사상-하늘과 땅의 대응관계를 통하여”, 송두중/안영숙 편집, 「한국천문력 및 고천문학-태양력 시행 백주년 기념 워크샵 논문집-」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 1996), 105-31.
- 최항섭,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이버커뮤니

- 케이션학보」25(2008), 223-54.
- \_\_\_\_\_, “레비의 집단지성: 대중지성을 넘어 전문가 지성의 가능성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26(2009), 287-322.
- 피에르 레비,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권수경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1). 원제 Pierre Lévy, *L'intelligence collective. Pour une anthropologie de cyberspace* (Paris: La Découverte, 1997).
- 헨리 지거리스트, 「문명과 질병」(황상익 옮김), (서울: 한길사, 2008). 원제 H. E. Sigerist, *Civilization and Diseas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43).
- Abusch, T., “The Promise to Praise the God in Šuilla Prayer”, A. Gianto (ed.), *Biblical and Oriental Essays in Memory of William L. Moran* (biblica et orientalia 48;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5), 1-10.
- Achenbach, R., “Zum Sitz im Leben mesopotamischer und altisraelitischer Klagegebete. Teil I: Zum rituellen Umgang mit Unheilrohungen in Mesopotamien”, *ZAW* 116 (2004), 364-73.
- Beaulieu, P. -A., “Late Babylonian Intellectual Life”, B. Leick (ed.), *The Babylonian World* (London: Routledge, 2007), 473-84.
- Beek, M. A., “Der Ersatzkönig als Erzählungsmotiv in der altisraelitischen Literatur”, *Volume de Congrès: Genève 1965* (VTSup 15; Leiden: Brill, 1966), 24-32.
- Brown, D., “Astral Divination in the Context of Mesopotamian Divination, Medicine, Religion, Magic, Society, and Scholarship”, *EASTM* 25 (2006), 69-126.
- Gabbay, U., “The 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Sumerian Emesal Litanies in Their Historical and Cultic Contexts”, *KASKAL* 16 (2019), 201-20.
- \_\_\_\_\_, “The Performance of Emesal Prayers within the Regular Temple Cult: Content and Ritual Setting”, K. Kaniuth et al. (eds.), *Tempel im Alten Orient* (CDOG 7: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3), 103-21.
- \_\_\_\_\_, “The *kalû* Priest and *kalûtu* Literature in Assyria”, *Orient* 49 (2014), 115-44.
- Grabbe, L. L., *Priests, Prophets, Diviners, Sage: A Socio-Historical Study of Religious Specialists in Ancient Israel*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Heeßel, N. P., “Diagnosis, Divination, and Diseas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Rationale behind the Babylonian *Diagnostic Handbook*”, H. F. J. Horstmanshoff and M. Stol (eds.), *Magic and Rationality in Ancient Near Eastern and Graeco-Roman Medicine* (Studies in Ancient Medicine 27; Leiden: Brill, 2004), 97-116.
- Hunger, H., *Babylonische und assyrische Kolophone* (AOAT 2; Kevelaer: Butzon & Berck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8).

- \_\_\_\_\_, *Astrological Reports to Assyrian Kings* (SAA 8;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2).
- Hunger, H. and D. Pingree, *Astral Sciences in Mesopotamia* (Leiden: Brill, 1999).
- Jeyes, U., *Old Babylonian Extispicy* (Istanbul: Nederland Historisch-Archeologisch Instituut te Istanbul, 1989).
- \_\_\_\_\_, "Divination as a Science in Ancient Mesopotamia", *Jaarbericht Ex Oriente Lux* 32 (1991-92), 23-41.
- Kinnier-Wilson, V., "Medicine in the Land and Times of the Old Testament", T. Ishida (ed.),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Winona Lake: Eisenbrauns, 1982), 337-65.
- Koch-Westenholz, U., *Mesopotamian Astrology: An Introduction to Babylonian and Assyrian Celestial Divination* (Kopenhagen: Museum Tusulanum Press, 1995).
- Kramer, S. M., "BM 96927: A Prime Example of Ancient Scribal Redaction", T. Abush et al. (eds.) *Lingering over Words: Studies in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in Honor of William L. Moran* (HSS 37; Atlanta: Scholars Press, 1990), 251-69.
- Larsen, M. T., "The Mesopotamian Lukewarm Mind: Reflections on Science, Divination and Literacy", F. Rochberg-Halton (ed.),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Phil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Presented to Erica Reiner*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87), 203-25.
- Leichty, E., "Ritual, 'Sacrifice', and Divination in Mesopotamia", J. Quaegebeur (ed.), *Ritual and Sacrifice in the Ancient Near Eas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from the 17th to the 20th of April 1991* (OLA 55; Leuven: Uitgeverij Peeters en Departement Oriëntalistiek, 1993), 237-42.
- Löhnert, A., "Manipulating the Gods: Lamenting in Context", K. Radner and E. Rob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21-45.
- Maul, S. M., "Omina und Orakel. A Mesopotamien", *RLA* 10, 45-88.
- Oppenheim, A. L., "Perspectives on Mesopotamian Divination", *La divination en Mésopotamie ancienne et dans les régions voisines: XIVe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Strasbourg, 2-6 juillet 1965)* (CRRAI 1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35-43.
- \_\_\_\_\_, "Divination and Celestial Observation in the Last Assyrian Empire", *Centaurus* 14 (1969), 97-135.
- Parpola, S., *Letters from Assyrian Scholars to the Kings Esarhaddon and Assurbanipal*, 2

- Vols. (Kevelaer: Butzon & Bercker, 1970-1983).
- \_\_\_\_\_, *Letters from Assyrian and Babylonian Scholars* (SAA 10; Helsinki: Helsinki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Mesopotamian Astrology and Astronomy as Domains of Mesopotamian 'Wisdom'", H. D. Galter (ed.), *Die Rolle der Astronomie in den Kulturen Mesopotamiens; Beiträge zum 3. Grazer Morgenländischen Symposium, 23.-27. September, 1991* (Grazer Morgenländische Studien 3; Graz, 1993), 47-59.
- Pongratz-Leisen, B., *Herrschaftswissen in Mesopotamien: Formen der Kommunikation zwischen Gott und König in 2. und 1. Jahrtausend v. Chr.*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1999).
- Richardson, S., "Introduction: Scholarship and Inquiry in the Ancient Near East", *JANEH* 2 (2015), 91-107.
- Rochberg-Halton, F., *Aspects of Babylonian Celestial Divination: The Lunar Eclipse Tablets of Enūma Anu Enlil* (AfO 22; Horn: Ferdinand Berger & Söhne, 1988).
- \_\_\_\_\_, *The Heavenly Writing: Divination, Horoscopy, and Astronomy in Mesopotamian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If P, Then Q": Form and Reasoning in Babylonian Divination", A. Annus (ed.), *Divination and Interpretation of Signs in the Ancient World*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0), 19-28.
- Šašková, K., "Adad-šumu-ušur and his Family in the Service of Assyrian Kings", P. Charvát and P. M. Vlčková (eds.), *Who Was King? Why Was Not King?* (Pragu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Czech Republic, 2010), 113-30.
- Sigerist, H. E., *Medicine and Human Welfa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1).
- Starr, I., *The Rituals of the Diviner* (Bibliotheca Mesopotamica 12; Malibu: Undena, 1983).
- Turner, V. W., "Religious Specialists: I Anthropological Study",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13 (1968), 437-44.
- Verderame, L., "A Glimpse into the Activities of Experts(UMMĀNU) at the Assyrian Royal Court", S. Gaspa et al. (eds.), *From Source to History: Studies on Ancient Near Eastern World and Beyond* (AOAT 412; Münster: Ugarit-Verlag, 2014), 713-28.
- Waldron, J., "The Wisdom of the Multitude: Some Reflections on Book 3, Chapter 11

of Aristotle's Politics", *Political Theory* 23 (1995), 563-84.

Winitzer, A., "The Divine Presence and Its Interpretation in Early Mesopotamian Divination", A. Annus (ed.), *Divin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Signs in the Ancient World*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0), 177-97.

Zuesse, E. M., "Divination", *EncRel* 4, 375-382.

#### 검색어

집단지성, 종교적 지식, 종교전문가, 점술, 고대근동, 삐에르 레비

[ ABSTRACT ]

##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us Specialists in the Ancient Near East from the Perspectiv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ong-Young Yoon  
Seoul Jangsin University

In the ancient Near East, especially in Neo-Assyria, divination was not just magic but was a part of the political tool for the reign of kings, that is, knowledge of the ruler (*Herrschaftswissen*). Observational and interpretative materials obtained through divination were therefore regarded as authoritative knowledge. The authority of this knowledge is evident by the fact that it was communicated to the king in the form of letters and reports. These materials were then kept in libraries and served as reference books for the later generations of experts and scholars to interpret the natural phenomena they discovered, thereby enabling the study of the ancient Near East to grow. In particular, the Neo-Assyrian king employed a group of religious experts called ‘*ummânu*’ (scholar) in his court to solve problems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king and kingdom. The group was composed of astrologers (*tupšarru*), haruspices (*bârû*), physicians (*asû*), healing therapists (*āšipu*), and lamenting specialists (*kalû*). The group of specialist scholars worked together to give necessary advice and establish policies for the king and kingdom.

In this respect, the divination materials of the ancient Near East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collective intelligence: a connected intelligence

www.kci.go.kr

jointly accumulated by religious experts who were intellectuals at the time. Ancient Near Eastern divination (*bārûtu*) has similarities to the ideas of today's knowledge society. The religious experts of the ancient Near East were information-rich specialists, much like modern knowledge workers. They categorized and interpreted information and also generated, stored, and communicated knowledge. The information they eventually regulated became the primary material underpinn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Religious specialists, as intellectuals, took various measures to eliminate impending dangers and change the unfortunate future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king and kingdom. They were interested in each other's fields of expertise, exchanged mutual information, and jointly generated new ideas. Their 'sharing' and 'collaboration,' based on close relations and exchanges, represent a part of the ancient Near Eastern collective intelligence system.

key words

collective intelligence, religious knowledge, religious specialist, divination, ancient Near East, Pierre Lévy

투고일 : 2022년 10월 15일

심사일 :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1월 19일

www.kci.go.kr